

# 시동 거는 시페퍼스 '베스트 6' 경쟁 치열

### 데뷔전 2주 앞 ... 광주 페퍼 스타디움서 광주체고 등과 연습경기 김형실 감독 "기술훈련보다 콤비네이션 플레이·컨디션 조절 집중"

'데뷔전'을 2주 앞둔 광주 AI페퍼스 여자배구단이 이 최종 '육석 가리기'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AI페퍼스는 최근 오전·오후 훈련을 반복하며 첫 과제인 '베스트 멤버' 꾸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야 16명 선수단을 꾸린 AI페퍼스는 아직 선수 포지션을 확정하지 못했다. 물론 '베스트 멤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수들은 현재 한 포지션을 3명씩 맡으며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홈경기장인 페퍼 스타디움(PEPPER STADIUM·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체고·목포여상 등 지역 '배구 명문'과 연습 경기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경기는 불박이 포지션 없이 멤버들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진행됐다.

김형실 감독은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콤비네이션과 현지 적응,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 끝없이 말을 주고받고, 사인을 받아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

데뷔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탓에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코트를 뜨겁게 달궜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는 우렁찬 '하이팅' 소리로 서로 용기를 북돋고, 점수를 내면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편하게 웃지 못하고 훈련만 하고 있다"며 "결국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연습 시간, 연습량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고 하이팅하면서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실수하더라도 자신있게 밀

어줘야 한다. 코트에서 단지 치고 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플레이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넓은 구장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페퍼 스타디움은 기존 종합체육관을 배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한 만큼 규모가 크다.

주장 이한비도 "용인 훈련장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페퍼 스타디움이 훨씬 큰데,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 장점도 많다"며 "처음 홈 구장에 와서 맞춰가는 단계다 보니 조금씩 벅격해지는 것도 있다. 하지만 서로 잘 맞춰가면서 적응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평소 작은 코트에서 연습하다가 넓은 데 오니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보인다. 눈이 볼에서 절대 안 떨어져야 하는데 공간이 넓어 주의가 산만해지고, 볼 소리가 뱅뱅 나질 않으니 감각도 무뎠다"며 "선수들은 소리와 빛, 경기장 규모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차례 적응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홈 구장을 자주 찾아 적응 훈련을 할 생각이다. 팬들과 만날 기회를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AI페퍼스 선수들은 지난 3일 클럽하우스인 경기도 용인 '드림파크'로 이동했다. 용인에서는 서브리시브, 스파이크리시브 등을 집중 훈련하고, 이동 공격과 콤비네이션 등 기술을 다듬고 있다.

선수들은 17일 광주 홈에 복귀해 적응훈련을 거쳐 19일 페퍼 스타디움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첫 시합에 나설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I페퍼스의 엘리자베트 바르가가 지난 1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목포여상과 연습경기에서 스파이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꿀찌 싸움 KIA, 고춧가루 부대라도...

### T 타이거즈 전망대

#### 롯데·LG전...한화와 더블헤더

'그들만의 가을 잔치'가 이번 주말 다시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창원 원정을 다녀온 뒤 안방에서 키움·한화와 홈 경기를 치렀다.

더블헤더가 예정됐던 9월 29일 NC전(이비로)차질을 빚었다. 1-4로 뒤진 5회말 쏟아진 폭우에 1차전은 강우 폴드로 끝났고, 2차전은 비로 치러지지 못했다.

7연전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서 2승 1무 3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NC전 연패로 올 시즌 상대전적이 2승 10패가 됐지만, KIA는 10월 세 경기에서는 패배를 남기지 않았다.

다카하시가 선발로 나선 1일 키움을 상대로 6-0 영봉승을 거뒀고, 주말 한화와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했다.

9위 KIA와 10위 한화의 대결이었지만 외국인 사령탑을 앞세운 두 팀의 최하위 싸움에 KBO팬들의 눈길이 쏠렸다. 만약 KIA가 두 경기에서 모두 지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은 더 컸다.

한화 원정팬들도 대거 챔피언스필드를 찾으면서 '그들만의 가을 잔치'에 각각 1891명과 1810명의 관중이 입장하기도 했다. 올 시즌 KIA의 평균 관중(1486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최원준

결과는 9위 KIA의 승리로 끝났다. 2일 김선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4로 뒤진 9회말, 김선빈은 한화 마무리 정우람을 상대로 동점 투런을 터트리면서 무승부를 만들었다. 3일에는 황대인이 주먹을 받았다. 1루수로 선발 출장해 2회 포구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3안타 3타점의 활약으로 9-6 역전승을 이끌었다.

1승 1무로 한화를 3경기 차로 밀어낸 KIA는 이번 주말에는 적지로 가서 한화와 리턴매치를 벌인다. 10일 경기가 더블헤더로 진행되면서 3경기를 치르게 된다.

KIA는 갈 길 바쁜 롯데, LG를 상대로 '고춧가루' 부대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5-6일 시작에서 만나는 롯데는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5위 키움과 3경기 차로 좁혔다. 7-8일 안방에서 상대하는 LG는 3.5경기 차로 애태계 1위 KT를 올려보고 있다.

KIA가 다카하시와 전상현의 가세로 힘이 붙은 마운드와 뜨거워진 방망이로 새로운 한 주를 맞는다. 시즌 내내 타격 최하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던 KIA지만 지난주 팀 타율이 0.315로 LG(0.32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테이블 세터' 최원준과 김선빈의 움직임이 좋다. 최원준은 10월 3경기에서 11타수 6안타, 0.54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선빈도 최근 3경기에서 15타수 5안타로 0.333의 타율과 함께 4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4일 현재 '3할 타자'가 없는 팀은 KIA와 한화다. 최원준과 김선빈이 각각 0.297과 0.295의 타율로 '3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원준과 김선빈이 3할 고지를 넘고 KIA의 무패 행진을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3일 경기에서 가슴에 공을 맞아 교체됐던 류지혁은 검진 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확인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포항의 벽은 높았다

### K리그1 33라운드 2-3 역전패

광주가 이번에도 포항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FC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2021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다. 최근 3연패로 다시 최하위로 내려선 광주는 앞선 20번의 만남에서 6무 14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난적'을 만났고 이번에도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강등 위기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난 광주는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다.

전반 15분 김주공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공을 허슬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22분에는 오른쪽에서 경합하던 엄원상이 재치있게 크로스를 올렸고, 중앙에 있던 이찬동이 뛰어올라 위력적인 헤더를 선보였다. 하지만 공은 포항 골키퍼 이준에 막혀 골대를 가리지 못했다.

전반 29분 광주가 기습을 쏟아냈다.

포항 신진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광준이 머리로 슈팅을 시도했다. 땅에 맞은 공이 광주 골대 방향했지만, 골키퍼 윤병국이 공을 쳐내 위기를 넘겼다.

전반 37분 김주공의 왼발슛이 아쉽게 골대를 지나쳤고 2분 뒤에는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폼에 안겼다.

후반전 본격적인 골 전쟁이 시작됐다.

포항이 후반 9분 팔라시오스의 왼발로 먼저 골

대를 갈랐다.

후반 24분 광주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엄원상이 페널티지역에서 권완규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김종우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두현석이 극적인 순간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이희균의 패스를 받은 두현석이 수비수를 따돌린 뒤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2-1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광주는 이어 포항의 공세를 막으면서 기다렸던 첫 승을 위한 투혼을 펼쳤다.

하지만 광주는 후반 37분과 후반 45분 이호재에게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이번에도 애태계 기다렸던 승리를 만들지 못했다.

한편 안양 원정에 나선 전남드래곤즈는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32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반 33분 안양 조나탄에게 선제골을 내준 전남은 15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하지만 패배를 앞둔 후반 47분 장순형이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경합을 하다가 안양 유종현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면서 쓰러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종호가 키커로 서서 안양 골대를 가르며 충남 아산 원정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종 귀국 ... FA 신분으로 소속팀 찾을 듯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한 시즌을 보낸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귀국한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양현종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최대 185만달러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신분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계약)을 하며 도전을 시작했다.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을 맞은 양현종은 4월 27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현역 로스터에 등록하며 꿈을 이뤘다. 등록 당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

스와의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빅리그 데뷔에도 성공했다.

양현종은 5월 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는 '빅리그 선발 데뷔전'도 치렀다.

하지만 등판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9월 15일 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됐고, 다시는 빅리그에 올라서지 못했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서 12경기(선발 4경기)에 등판해 3패 평균자책점 5.60(35.1이닝 42피안타 24실점 22자책)을 올렸다. 마이너리그 성적은 10경기(선발 9경기) 3패 평균자책점 5.60(45이닝 52피안타 32실점 28자책)이다.

양현종은 FA 신분으로 2022시즌 소속팀을 찾는 중이다. /연합뉴스

## 대성초 JK상조배 초등 야구대회 우승

대성초가 2021년 JK상조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성초는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수창초를 8-2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첫날 서석초를 6-5로 이긴 대성초는 이어 서림초와의 경기에서 10-7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했다. 대성초 송호진이 대회 최우수상 주인공이 됐고, 우승을 이끈 신경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대성초와 함께 서림초, 학강초, 서석초, 수창초, 화정초, 송정동초 등 7개 학교가 참가해 대결을 벌였다.

◇대회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 송호진(대성초) ▲우수투수상 : 박승민(대성초) ▲타격상 : 송시현(6타수 6안타·1.000·서림초) ▲최다도루상 : 안상훈(3개·대성초)



JK상조배 우승을 차지한 대성초가 수창초와의 결승전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최다타점상 : 김장우(4타점·대성초) ▲감독상 : 권태웅(수창초) ▲미기상 : 박주혁(수창초) ▲감독상 : 신경호 감독(대성초) ▲지도상 : 정미교 교장(대성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